

退溪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

金 周 淳*

<目 次>

- | | |
|-------------------------|---------|
| I. 序 言 | 2. 田園閑居 |
| II. 退溪의 隱逸思想과 陶淵明 | 3. 飲酒 |
| III. 退溪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 | 4. 桃花源 |
| 1. 陶淵明의 憧憬 | 5. 人生無常 |
| | IV. 結 語 |

I. 序 言

退溪 李滉(1501~1570)은 이름이 滉이고, 字는 景浩이며, 退溪는 그의 號이다. 그는 16세기 조선 중기의 문학과 철학을 대표하는 문학자이자 철학자이며, 儒學者이자 교육가이기도 하다. 그는 燕山君의 戊午土禍(1498)와 甲子土禍(1504)의 餘震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때에 慶尙北道 安東郡 陶山面 兔溪洞에서 태어나 청년기에는 己卯土禍(1519)를 직접 목도하였고, 장년기에는 乙巳土禍(1545)에 연루된 형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자신도 삭탈관직을 당하는 정치적 격동기에 살았다. 그는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出仕와 隱退를 20여 회¹⁾ 반복하다가 그가 평소 자연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인해 말년에는 고향에 은거하여 조정에서 벼슬로써 수 차례의 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阿部吉雄, <李退溪의 思想과 行動(一)>, 《退溪學報 第21號》, 서울, 退溪學研究院, 1979, 13쪽.

름이 있어도 응하지 않고, 오직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써 교육과 사상
 방면에서 줄기를 이루어 정신적인 師表가 되었다. 이러한 삶은 晉宋年間
 의 정치·사회 혼란시기에 살았던 도연명이 자연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인
 해 출사와 은퇴를 다섯 차례²⁾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마지막 벼슬인 彭澤
 丞을 사직하고 고향에 은거한 후 조정에서 벼슬을 내려 초청된 일이 있어
 도 다시는 벼슬에 흔들리지 않고³⁾ 田園 시가문학의 新局面을 개척하여
 “은일 시인의 으뜸”⁴⁾으로 불리는 도연명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에
 本稿는 도연명의 작품과 관련된 퇴계의 시를 발췌하여 퇴계가 어떠한 방
 식으로 도연명을 수용하고, 兩人의 작품과 생활에는 어떠한 相似點과 相
 異點이 있는지를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II. 退溪의 隱逸思想과 陶淵明

隱逸은 전통 사회의 자연관 내지 인생관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상으로
 써 보통 道家的 隱逸思想을 말한다. 은둔이 참여를 거부하는 완전한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데 반해 道家的 은일 사상은 老莊思想의 핵심인 道와 無
 爲의 개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자연이라는 모든 존재의
 모태 속으로 돌아감으로써 인간의 우환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自然에의 歸依를 의미하며, 현세에 대한 관심이나 名利에 연연한 욕망을
 벗어나 스스로의 高踏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학세계에서 대표적인 隱逸思想家로는 致仕歸田하여 자연을 벗삼아 詩

- 2) 첫 번째 出仕는 29세때 江州祭酒, 두 번째는 35세때 劉牢之의 參軍, 세 번째
 출사는 37세때 桓玄의 幕下가 되었고, 네 번째는 40세때 劉敬宣의 參軍, 다섯
 번째는 41세때 彭澤丞이 되었다.
- 3) 張基槿, 《新譯 陶淵明》, 서울, 명문당, 2002, 30쪽: “도연명은 55세 때 조정
 으로부터 著作郎이란 벼슬에 초청된 일이 있었고, 62세 때 江州刺史 檀道濟로
 부터 출사를 요청 받은 일이 있으나 그는 깨끗이 거절하고 보내온 예물을 말
 끔히 돌려주었다. 다시는 벼슬에 흔들리지 않고 ‘固窮節’을 잘 지켰다.”
- 4)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酒로써 田園樂을 즐긴 중국의 도연명을 꼽을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致仕歸田한 후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면서 사회이념을 구현한 퇴계 이황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퇴계와 도연명의 은일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은일 사상은 어떻게 같은 점이 있는지를 兩人의 시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吾以爲欲知二樂之旨，當求仁智者之氣象意思，欲求仁智者之氣象意思，亦何以他求哉。反諸吾心，而得其實而已。苟吾心有仁智之實，充諸中而暢於外，則樂山樂水，不待切切然求，而自有其樂矣。今不知務此，而徒見其巍巍然蒼蒼然者，曰吾以是求仁者之樂。混混然滔滔然者，曰吾以是求智者之樂。吾恐其莽莽蕩蕩，愈求而愈不近矣。(나는 생각컨대, 二樂(요산요수)의 뜻하는 바를 알고 하면 인자·지자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자·지자의 기상과 마음을 구하려고 한다면 다른 데 구할 것이 없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을 꺼내는 것으로 족하다. 만약 나의 마음에 仁智의 實이 있어 속에서 가득 차고 밖으로 퍼진다면, 간절히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즐거움이 있게 된다. 이 인자의 實을 확충할 것을 힘쓰지 아니하고, 다만 높이 솟아 나무들이 무성한 산을 보고 “나는 이것으로 인자의 좋아함을 구한다.”고 하고, 混混滔滔하게 흐르는 내(川)를 보고 “나는 이것으로 지자의 좋아함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긋남이 심하여 구하면 구할수록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⁵⁾

위의 글은 퇴계의 은일 사상 형성을 말해주고 있다. 퇴계는 어려서부터 儒家학습을 통해 “知者樂水，仁者樂山.(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⁶⁾ 라는 가르침에서 자연사랑을 배우고, 그의 시에서 “我性愛山隱(내 천성 산에 숨길 좋아하네.)”⁷⁾와 “我本山野質，愛靜不愛喧.(내 본래 산과 들을 좋아하는 체질이라, 조용함을 좋아해도 시끄러움은 사랑하지

5) 李滉, 《退溪全書》 卷3, <自省錄·答權好文論樂山樂水>

6) 《論語·雍也篇》

7) 李滉, 《退溪全書》 卷5, <守靜>

않네.)”⁸⁾라고 읊은 것은 그의 천성이 隱逸과 閑寂을 좋아함으로 인해 그의 은일 사상이 형성되었음도 알게 한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유가의 학습을 통해 “知者樂水, 仁者樂山.(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라는 자연사랑을 배우고, “性本愛邱山(성품은 본시 산을 사랑했거늘)”⁹⁾과 “質性自然(천성이 자연을 좋아하는데)”¹⁰⁾라고 읊은 도연명의 성품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들 兩人은 자연과 더불어 풍류 속에서 살아가려는 隱逸的 自然觀을 《莊子·齊物論》에 나오는 “天地與我並生, 萬物與我爲一.(하늘과 땅도 나와 더불어 함께 생겨나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에 두어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경지를 그들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退溪는 은일의 생활 속에서 한가한 틈을 타 독서에 열중하였다. 그의 독서태도를 적은 아래의 기록을 보자.

對案黑坐, 兢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 則發於憤排,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釋, 以俟其自解.(책상을 대해 묵묵히 앉아서 연구와 사색에 잠겼을 제, 이따금 마음에 맞는 것이 있으면 문득 혼연히 먹기를 잊은 적도 있거니와 합하지 않는 것이 있을 제는 벗들에게 도움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도 터득하지 못할 때에는 憤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히 억지로 해서 통하게 하려 하지는 않고 잠시 한 편에 두었다가, 때로 다시금 뽑아내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고 엮어서 저절로 해결될 때를 기다렸었다.)¹¹⁾

이것은 “好讀書, 不求甚解, 每有會意, 便欣然忘食.(책 읽기를 좋아했으나 지나치게 따지거나 집착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에 일치하는 글을 대하면 즐거워서 끼니를 잊고 탐독하였다.)”¹²⁾라고 말한 도연명의 학문연구

- 8) 李滉, 《退溪全書》卷1, <和陶集飲酒其五>
- 9)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歸園田居其一>
- 10)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歸去來辭序>
- 11) 李滉, 《退溪全書》卷13, <陶山記>
- 12)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五柳先生傳>

태도와 相通한다.

퇴계는 致仕歸田한 후 자신이 전원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携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時藥, 搜林攝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簞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때로 몸이 가볍고 心神이 새 맑아서,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 보아 감개가 생기면, 책을 덮고 지팡이를 짚고 뜰 마루에 나가 연못을 구경하기도 하고, 壇에 올라 節友社를 찾기도 하고,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기도 한다. 또는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臺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해져서 뜻 가는 대로 이리저리 노닐다가 눈에 닿으면 興이 일고, 景을 만나면 興趣가 이루어짐에 興을 다한 뒤에야 돌아온다.)¹³⁾

이 글은 마치 <歸去來辭>를 읊으며 전원으로 돌아와 자연을 벗삼아 소일한 도연명의 모습을 퇴계가 재연한 느낌을 주어 兩人의 田園閑居 생활이 매우 흡사함을 알게 한다.

한편 퇴계는 趙南冥(1501~1572)에게 보낸 書簡에서 그가 평소 벼슬에 뜻이 없고, 자연 속에 은일 하여 학문연구에 뜻이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某自少徒有慕古之心, 緣家貧親老, 親舊強使之, 由科第取利祿, 某當時實無見識, 輒爲所動, 偶名薦書, 汨沒塵埃, 日有不暇, 他商何說哉, 其後病益深, 又自度無所 猷爲於世, 始乃回頭住脚, 益取古聖賢書而讀之, 於是惕然覺悟, 欲追而改塗易轍, 以收桑榆之景, 乞身避位, 抱負墳典而來投於故山之中, 將以益求其所未至, 庶幾賴 天之靈, 萬有一得於銖銜寸積之餘, 不至虛過此一生, 此某十年以來之志願, 而聖恩 舍垢, 虛名迫人, 自癸卯至壬子, 凡三退歸, 而三召還, 以老病之精力, 加不專之工 程, 如是而欲望其有成, 不亦難乎又鄭惟一

13) 李滉, <退溪全書>, <陶山雜詠并記>

撰言行錄云, 先生本少宦情, 又見時事有大機關, 自癸卯始沒退休之志. 自是以後, 雖屢被召還, 常不久於朝云.’ (나는 어려서부터 오직 옛날을 그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고 어른이 노쇠하셨으며 친구들도 강요했으므로 과거를 거쳐 녹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실로 식견이 없었고,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는 바가 되었으며, 어쩌다가 천거되어 티끌 속에 묻혀 시달렸을 뿐 통 한가한 겨를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말은 더해 무얼 하겠습니까. 그 후로 병이 더욱 심하고, 또한 스스로도 세상에 위할 바 없겠구나 생각되자, 비로소 조용히 멈추어 반성하며 더욱 옛 성현들의 글을 읽었으며, 이에 새삼 깨닫고 터득한 바 되어 늦으나마 방도를 고쳐 가지고 만년의 모습을 정리하고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옛 책들을 가지고 고향의 산중에 들어앉아 일찍이 이르지 못하던 진리를 더욱 찾고자 했습니다. 만약 영특한 하늘의 도움으로 한 푼 한 치라도 배움에 얻은 바가 있다면 이 일생을 허송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내가 십여 년을 두고 바랐던 바이거늘, 성은이 하찮은 나를 포용하시므로 나는 헛된 이름으로 남들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계묘(43세)로부터 임자(52세)에 걸쳐 세 번 소환되었습니다. 또한 늙고 병든 몸과 힘으로 전문이 아닌 일을 맡았으니 이러한 지경으로 성공 있기를 바랄 수도 어려운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정유일이 지은 <언행록>에도 있다. ‘선생은 일찍부터 벼슬의 뜻이 적었으며, 그 당시의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계묘(43세)부터 은퇴할 생각을 가졌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불렀으나 노상 조정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으셨다.’¹⁴⁾

퇴계는 이러한 심정에도 벼슬길을 택하게 된 것은 李德弘(1541~1596)이 퇴계의 생활상에 대하여 “家本清寒, 簞瓢屢空, 環堵蕭然, 不蔽風雨, 人所難堪, 而處之裕如.(집안이 본래 청빈하여 쌀그릇이 자주 비었으며, 온 집안이 허전하고, 비바람을 막지 못했다. 남들 같으면 견디기 어려운 살림이었으나, 선생께서는 유연히 지내셨다.)”¹⁵⁾라고 말했듯이 퇴계가 당시 정치·사회의 불안 속에서도 벼슬길에 뛰어 들은 것은 곤궁한 생활을 면하고자 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벼슬에 나아간 후에도 청렴한 생활로 인해

14) 李滉, 《退溪全書》卷1, <與曹南冥書>

15) 李滉, 《退溪全書》卷1, <言行錄>

궁핍한 생활은 계속되어 “敝屣衣欲典，瓶粟行告竭。宦情易成歎，鄉心不可遏。(살림 궁색하여 떨어진 옷도 전당잡혀야 하며, 쌀독에는 양식이 떨어질 지경이니. 벼슬살이 몇 번이고 사직하고서, 고향에 가고픈 맘 끝이 없어 라.)”¹⁶⁾라고 말하여 벼슬생활은 가난에서 탈피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의 천성에도 맞지 않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도연명이 그의 <五柳先生傳>에서 “環堵蕭然，不廢風日，短褐穿結，箠瓢累空，晏如也。(환도가 쓸쓸하여 바람과 해를 가리지 못하고 짧은 갈옷이 뚫어지고 기웠으며, 도시락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 자주 떨어졌으나 태연하였다.)”라고 말한 궁핍한 생활과 그의 <歸去來辭序>에서 “余家貧，耕植不足以自給，幼穉盈室，瓶無儲粟，生生所資，未見其術。親故多勸余爲長吏，脫然有懷。(나는 집이 가난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금자족할 수가 없었다. 집안에는 어린 자식들이 가득한데 반하여 항아리에는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것이 없어, 도무지 생계를 꾸려나갈 방도가 서지를 았았다. 친척이나 벗들이 모두 나에게 지방관리나 되라고 권했으며, 나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나 해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가난을 해결하고자 벼슬길을 찾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벼슬한 후에는 “於時風波未靜，心憚遠役，彭澤去家百里，公田之利，足以爲酒，故便求之。及少日，眷然有歸歎之情。(당시는 아직도 세상이 평온하지 못하였으므로 멀리 가서 벼슬을 하기에는 마음이 꺼림칙했다. 허나 팽택은 집에서 백 리의 거리였고, 또 녹으로 주어진 공전의 수확으로 족히 술을 빚어 마실 수가 있었으므로 이내 팽택령을 승낙했다. 그러나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眷然히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¹⁷⁾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심정을 밝힌 바를 음미해 보면, 퇴계와 도연명의 出仕觀과 隱逸觀은 조금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한다.

결국 퇴계는 그의 본성과 어긋난 벼슬길에서 머뭇거림을 과감하게 버리고 田園으로 돌아왔음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6) 李滉, 《退溪全書》卷1, <歲季得鄉書書懷>

17)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歸去來辭序>

嗚呼余之不幸晚生遐裔，樸陋無聞而願於山林之間，夙知有可樂也。中年妄出世路，風埃顛倒，逆旅推遷，幾不及自返而死也。其後年益老，病益深，行益蹶，則世不我棄，而我不得不棄於世。乃始脫身樊籠投分農畝，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不期而當我之前矣。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豁幽憂，而晏然於窮老之域者，豈是將何求矣。(아,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 태어나서 질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은 없으나, 돌이켜 보건대 山林 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나 중년에 망녕되이 세상 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엎는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거의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죽을 뻔하였다. 그 뒤에 나이는 더욱 늙고 병은 더욱 깊어지며, 行身은 더욱 곤란하여 지고 보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내가 부득이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樊籠을 벗어나 전원에 몸을 던지니, 앞에서 이른바 山林의 즐거움이 뜻밖에 내 앞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즉 내가 지금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풀면서 老境을 편히 할 곳은 여기를 버리고 장차 어느 곳을 구하겠는가.)¹⁸⁾

위의 글에서 퇴계는 일찍부터 산수의 즐거움을 알았으나, 벼슬에 얽매어 전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전원으로 돌아오니 마치 새가 樊籠에서 벗어난 듯 영혼이 즐겁다는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퇴계가 벼슬길에서 얽매었던 생활을 그의 <以事當還都至榮州病發留草谷田舍> 시에서 “羈鳥有時依樹林，野僧隨著雲山。(얽맨 새도 이따금은 짙은 숲속 의지하고, 들 중은 곳에 따라 구름 메에 몸 부친다.)”라고 표현한 것은 도연명이 그의 <歸園田居其一> 시에서 “羈鳥戀舊林，池魚思故園。(떠돌이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연못의 물고기는 옛 물을 생각한다.)”라고 읊은 詩想과 같다.

퇴계가 45세 때에 校書館校理兼承文院校理로 임명받자, 벼슬에 응하지 않고 고향 경내를 돌아보며 읊은 몇 수의 시¹⁹⁾ 중에서 한 수의 시를 감

18) 李滉, 《退溪全書》卷6, <陶山雜詠并記>

19) 李滉, 《退溪全書》卷1, <孤山·日洞·月明潭·寒栗潭·景巖·彌川長潭·白雲洞·丹沙壁·川沙村>: “獨遊孤山至月明潭因并水循山而下晚抵退溪每得勝境即賦一絕凡九首.”

상해 보자.

長憶童時釣此間, 卅年風月負塵寰.
我來識得溪山面, 未必溪山識老顏.

(생각에 잠겼세라, 어릴 때 이 곳에서 고기 낚던 일, 삼십 년 긴 세월을
풍진 속에 저버렸네. 나야 溪山의 옛 모습을 알아보련만, 늙은 이내 모습
을 溪山이야 어찌 알리.)²⁰⁾

여기서 퇴계는 지난 30년간 벼슬길에서 헛되이 보내다가 전원으로 돌아
온 것에 대한 감회와 고향산천이 자신을 어떻게 반겨줄지 모르겠다는 심
정을 읊었다. 이 시에 나온 “三十年風月負塵寰.(삼십 년 긴 세월을 풍진
속에 저버렸네.)”의 시구는 도연명이 歸去來하여 지난날의 벼슬길에서 헛
되이 보낸 아쉬움을 읊은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잘못하여 먼지 속 그
물에 빠져들어, 어느덧 벼슬살이 삼십 년을 겪었노라.)”²¹⁾이라는 시구와
相通한다. 이처럼 퇴계와 도연명은 마치 前生에 인생의 삶을 같은 방식으
로 살아가자고 약속이라도 한 듯 너무나 비슷함을 兩人的 현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퇴계는 전원에 은일 하면서 자연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읊은 時
調가 있다.

이런들 엇다하며 저런들 어다하료
초야우생이 이리타 엇다하료
하물며 석천고황을 고터 프삼하료 <陶山十二曲>

이 時調에서 퇴계는 宦路에 있던 草野에 隱居하든 상관없지만, 자연에
대한 嚮往은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표명하였다.

퇴계가 致仕歸田을 더욱 강도 있게 읊은 다른 時調도 있다.

20) 李滉, 《退溪全書》 卷1, <彌川長潭>

21)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田園閑居其一>

當時에 너던 길을 몇히를 버려두고
어디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디 모습 마로리 <陶山十二曲>

이 시조에서 퇴계는 본래 자연을 좋아하던 본성을 버리고 벼슬길에 있다가 이제야 전원으로 돌아왔음을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책망하듯 읊었다.

퇴계가 奇大升(1527~1572)에게 보낸 편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士苟一立於朝，則皆爲中鉤之魚，其剛腸疾惡者，多至於不免，依阿巽懦者，過相戒爲模稜容悅之態而已……蓋蛾之赴燭，人不當似之，立巖牆之下，以取覆壓。(선비가 한 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고기 꼴이 되어, 강직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화를 면치 못하고, 아부나 하는 나약한 자들은 조심스럽게 남들의 눈치나 보고 아첨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불로 뛰어드는 나방이를 본받아서는 안 되며, 담장 밑에 서 있다가 깔려 죽는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²²⁾

이 편지는 士禍로 인해 뜻 있는 선비들이 평소에 쌓았던 經世致用的 學問을 發揮할 수 없는 당시의 朝廷狀況을 말해준다. 바로 이러한 정황은 퇴계로 하여금 隱逸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고, 그의 다른 시에서 “宦海多翻覆，寧忘賦遂初.(벼슬의 바다 파도가 많으니, 은일의 뜻을 어찌 잊으리요?)”²³⁾의 표현은 그가 여러 임금들의 계속된 관직 수여에도 불구하고 은일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이유를 서술한 것이다. 한편 퇴계가 이 같은 정치적 파란을 직간접으로 겪으면서 49세에 처음 사표를 올린 후에도 여러 차례 조정을 들락거린 것은 “天下有道則見，無道人隱.(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라는 儒家의 가르침²⁴⁾과 “義安即踏之，可往亦可還.(대의에 맞으면 나서기도 하고, 물러

22) 李滉, 《退溪全書》卷1, <答奇明彦>

23) 李滉, 《退溪全書》卷5, <次韻答禹景善二首>

나기도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의 出處進退가 오직 大義大節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퇴계는 은퇴하여 고향에 기거할 때 사회이념을 진리의 탐구와 진수라는 ‘講學’으로 전환하여 陶山書堂을 創設하고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그가 설립한 陶山書堂은 虞舜의 親陶와 도연명의 躬稼에서 뜻을 취하였다²⁵⁾고 하였다. 그는 이외에도 《朱子書節要》의 편집과 《啓蒙傳疑》의 집필, 그리고 《宋季元明理學通錄》 등 性理學의 저술에 힘을 쏟았으며, 60세에는 奇大升과 그 유명한 四端七情論辯을 시작하였고, 68세에는 선조에게 <聖學十圖>를 지어 올리는 등 사회의 木鐸이 되는 일을 하였다.

III. 退溪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

1. 陶淵明의 憧憬

퇴계가 14세에 쓴 “好讀書, 雖稠人廣坐, 必向壁潛玩. 愛淵明詩, 慕其爲人.(글읽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은자리에서도 반드시 벽을 향하여 조용하게 책을 읽었다. 도연명의 시를 좋아했고, 그의 사람됨을 사모했다.)”²⁶⁾의 글을 보면, 퇴계는 평소에 도연명의 시를 좋아하고, 그의 인품과 생활에 대하여 지극히 推仰하였음을 알게 한다.

卓哉柴桑翁, 百世朝暮親.
湯湯洪流中, 惟子不迷津.

(우뚱하도다. 시상의 늙은이여! 백 년을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여기었네. 넘실넘실하는 큰 물결 속에서도 그대만이 나루 찾아 헤매지 않았네.)²⁷⁾

24) 《論語·泰伯篇》

25) 李滉, 《退溪全書》卷3, <陶山書堂> :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

26) 李滉, 《退溪全書》卷1, <言行錄>

이 시에서 퇴계는 세상의 모진 풍파가 일어도 도연명만이 벼슬길에 얽매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삶으로 자신의 절개와 지조를 지킨 인물이라고 극찬하였다.

聞昔潯陽歸臥客，結廬人境每關門。

平生歡仰高風處，不要逃喧自絕喧。

(심양으로 돌아와 누워있는 도연명은, 인경에 집을 엮고 매양 문을 닫았다네.

드높은 그의 풍격 평생을 우러르니, 속을 굳이 피할세라 속이 절로 끊어지네.)²⁸⁾

이 시에서 퇴계는 도연명이 속세의 일과 단절하고 은일 하며 그의 높은 품격을 유지하고 있음에 그를 평생토록 우러러보겠다고 하였다.

卯金竊鼎勢滔天，擲菊江城有此賢。

餓死首陽無乃隘，南山佳氣更超然。

(卯金刀 劉가 나라를 훔쳐 기세가 하늘까지 넘치는데, 강가 마을에서 국화를 따는 이 어진 이가 있네. 수양산에서 굶어죽은 백이 숙제는 속이 너무 좁지 않은가. 남산의 맑은 기운 더욱 초연하네.)²⁹⁾

이 시에서 퇴계는 周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어죽은 백이·숙제의 은둔보다 국화를 따며 초연한 자세로 은일을 한 도연명에게 더 깊은 愛情과 仰慕心이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퇴계는 그의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 시에서 “手把黃花坐憶陶(국화를 손에 잡고 도연명을 그리노라)”라고 읊어 도연명이 그의 <飲酒其五> 시에서 읊은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노라니, 한가로이 남쪽 산 눈에 들어오네.)”라는 詩想을 그리며 도연명

27) 李滉, 《退溪全書》卷1, <和陶集飲酒二十首>

28) 李滉, 《退溪全書》卷5, <次韻金道盛三絕>

29) 李滉, 《退溪全書》卷2, <栗里歸耕>

의 은일 생활을 憧憬하였고, 그의 <和子中間居二十詠> 시에서는 “栗里賦 成真樂志.(연명의 시가 이루면 진정 마음이 후련했다네!)”라고 읊어 平淡하고 자연스러운 도연명의 詩風에 동화하고자 하였다.

2. 田園閑居

梁의 昭明太子는 그가 지은 <陶淵明傳>에서

淵明不解音律, 而蓄無絃琴一張, 每酒適, 輒無弄以寄其意.(연명은 음률을 잘 모르기는 하나, 줄 없는 거문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술이 적당히 취할 즈음에는 걸핏하면 그것을 타면서 뜻을 의탁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도연명은 고상한 선비의 자세로 田園閑居하고자 無絃琴을 어루만지며 千古의 知音에 달하고자 하였다. 퇴계도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노인은 본디 음률을 잘 모르기는 하나, 오히려 세속적인 음악을 듣기에는 싫어하였으므로 한가한 곳에서 병을 수양하는 나머지에 무릇 느낀 바 있으면 문득 시로써 표현을 하였다.)³⁰⁾

라고 말하여 도연명처럼 음률은 잘 모르지만 시로써 그의 느낀 바를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知音世遠絃無用, 慕義人攀足亦尊.

(세상에知音 없어 거문고 줄 쓸데없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의 발도 또한 높아졌네.)³¹⁾

30) 李滉, 《退溪全書》 卷2, <陶山十二曲跋文>

31) 李滉, 《退溪全書》 卷3, <鄭子中求題屏畫八絕>

라고 읊어 세상에 거문고를 타서 千古의 음률에 도달한 사람은 없지만, 도연명은 無絃琴으로 이에 도달한 義人으로 보았다. 그러나 퇴계는 그의 <和金彦遇二首> 시에서 “有絃無乃勝無絃?(아무래도 有絃이 無絃보다 낫지 않은가?)”³²⁾라고 읊으며, 이 시의 答註에서 “嘗謂陶公無絃琴事, 雖有高致似未免崇虛打乖之病.(일찌기 나는 말하기를 도연명의 무현금 고사가 비록 높은 운치는 있다할 망정 허를 숭상하는 괴벽스러운 병을 면치 못할 듯하다.”라고 말한 것은 도연명이 ‘無絃’이란 어휘를 씀으로 인해 혹시나 독자로 하여금 당시 유행하였던 玄學이나 老莊思想의 허무주의에 젖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도연명의 農耕과 관련된 시를 지었다.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

(순임금도 그릇 구어 안락을 누리었고, 도연명도 농사지어 낙을 삼았다네.

성현들의 심사를 내 어찌 얻으리, 노경에 돌아와 고반을 맞보노라)³³⁾

이 시는 舜임금이나 도연명이 농사짓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것처럼 자신도 歸去來하여 몸소 농사지으니 그들의 田園樂에 동참하게 되어 즐겁다고 읊은 것이다.

秋懷慆慆蕙蘭腓, 水落天空雁欲飛.

不係窮通憂與樂, 何知今古是兼非.

天淵臺迥聞吟坐, 杳杳遷長帶醉歸.

但使淵明終老地, 衣沾夕露願無違.

(치량한 가을이라 헤초 난초 모두 시들고, 물지고 하늘마저 비어 기러기 나르려 하네. 궁통과 근심 즐거움 관계치 않을진대, 고금의 옳고 그름 알아서 무엇하리.

32) 李滉, 《退溪全書》卷5, <和金彦遇二首>

33) 李滉, 《退溪全書》卷6, <陶山雜詠并記>

천연대 이스란다 한가히 앉아 노래하고, 작력친 길어라 취기 뉘 채 돌아오니.
 도연명이 마지막 늙은 땅이거니, 저녁이슬 옷 젖어도 소원이나 이루었으
 면)³⁴⁾

이 시는 퇴계가 험난한 벼슬길에서 벗어나 고향에서 농경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도연명이 致仕歸田하여 몸소 농사짓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읊은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何知今古是兼非(고금의 옳고 그름 알아서 무엇하리.)”의 시구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覺今是而昨非(이제는 각성하여 바른 길을 찾았고,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잘못이었음도 깊이 깨달았노라.)”에서 援用하였으며, “衣沾夕露願無違(저녁이슬 옷 젖어도 소원이나 이루었으면)”의 시구는 도연명의 <歸園田居其三> 시에 나오는 “衣霑不足惜, 但使願無違(옷 젖는 것 아까웁지 않다. 오직 농사 잘 되기만 바랄 뿐!)”에서 그 정취를 效顰하였다.

‘梅·蘭·菊·竹’은 ‘四君子’라고 일컬어 선비의 굳건한 節義를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왔다. 도연명이 국화를 몹시 사랑하여 국화 사랑의 시를 남긴 것처럼 퇴계는 매화를 무척 사랑하여 100여 수의 梅花詩³⁵⁾를 남겼다. 도연명이 사계절 푸름으로 절개를 상징하는 ‘松·竹·菊’은 읊었지만, ‘梅’에 대한 시는 그의 시편에서 한 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도연명이 ‘梅’를 그의 시에서 읊지 않은 것은 그가 성장하고 활동한 지역이 사시절 따스한 기온의 남쪽지방이라 ‘梅’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퇴계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松菊陶園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 苦節清芬儘飽諳.

(도연명의 동산엔 솔 국화 대 셋일 뿐, 매화는 어찌하여 참여를 안 시켰던고?

나는 지금 아울러 풍상계를 맺으니, 모진 절개 맑은 향기 너무나 잘 알겠

34) 李滉, 《退溪全書》 卷3, <秋日遊陶山夕歸已未>

35) 徐首生, <退溪詩書의 特異性>, 《退溪學研究論叢4》, 大邱,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97, 222쪽.

노라)³⁶⁾

라는 시를 지어 도연명이 매화 사랑의 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매화는 찬 눈보라 속에서 연약한 꽃잎을 드러내어 그 맑은 향기는 국화보다도 더 그윽함을 주기 때문에 퇴계는 四君子 중에서 특별히 梅花 사랑의 詩를 많이 남겼다.

퇴계가 田園閑居를 읊은 다른 한 수의 시를 감상해 보자.

林間茅屋石間泉, 閒愛秋風灑靜便.
易玩義文一兩卦, 詩吟陶邵五三篇.
園容野鹿栖雲宿, 窓對沙禽向日眠.
不獨身閒心亦泰, 任從多病在人先.

(숲 속 띠집, 돌틈엔 샘물 흐르고, 한가로이 가을 바람을 즐기나니 맑고도 고요하다. 易經의 伏羲 文王 한 두 卦를 관찰하고, 陶靖節 邵康節의 詩 몇 편을 읊조린다. 동산의 들시슴은 깃든 구름 속에 자고, 창을 마주한 물새는 별 아래 조누나. 몸만 한가하라 마음도 편안하니, 병 많기로 남 앞선다 한들 무엇이 관계되랴.)³⁷⁾

이 시에서 퇴계는 평화스러운 田園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전원을 노래한 陶淵明과 邵康節의 詩까지 읊조린다 하였고, 마지막 장에서는 들시슴과 물새들이 조는 한가한 모습을 보니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多病조차도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퇴계의 시에는 “三徑”의 故事³⁸⁾를 援用하여 隱者의 정취를 읊은 작품들이 있다.

36) 李滉, 《退溪全書》 卷6, <陶山雜詠>

37) 李滉, 《退溪全書》 卷3, <和子中間居十二詠·愛閒>

38) <三輔決錄>, 《辭海》,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0. : “蔣詡字元卿, 舍中竹下開三徑, 唯求仲·羊仲從之遊.”

陶淵明, <歸去來辭>: “三徑就荒, 松菊猶存.” 後人本此, 輒以三徑稱隱士所居.

陪遊三徑往來頻 (삼경에 모셔 놀아 자주 오가지다)³⁹⁾

養疾偶成三徑趣 (병조심을 하다보니 삼경취미 이뤄지고)⁴⁰⁾

來從三徑讀 (삼경을 찾아들어 옛글 함께 읽고 지고)⁴¹⁾

誓移三徑來棲息 (삼경을 옮기어라 예 살기로 다짐하니)⁴²⁾

憶從三徑厲風霜 (바람 서리 삼경에서 곁은 절개 수련하니)⁴³⁾

清地風霜三徑裏 (대지 가득한 풍상 아늑한 삼경 속에)⁴⁴⁾

“三徑”은 원래 漢나라의 隱士인 張翮의 門庭에 좁은 길이 셋이 있었다고 하여 隱士가 거니는 길로 알려졌는데, 퇴계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三徑就荒, 松菊猶存.(세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남아있다).”에서 “三徑”을 취하여 위와 같은 작품에 援用하였다.

清真梅月稱盤桓 (칭진한 매화 달은 반환하기 알맞구려)⁴⁵⁾

眞愜盤桓暮境心 (늑으막에 수양하기 참으로 적합한 걸)⁴⁶⁾

위의 시구에 나온 “盤桓”이라는 시어도 퇴계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撫孤松而盤桓(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거린다)”에서 차용하여 도연명의 田園閑居 생활에 젖어들고자 하였다.

39) 李滉, 《退溪全書》 卷1, <龔巖先生愛日堂 用李復古先生韻>

40) 李滉, 《退溪全書》 卷2, <立秋日 溪堂書事 其三>

41) 李滉, 《退溪全書》 卷1, <寒棲雨後書事>

42) 李滉, 《退溪全書》 卷2, <尋改卜書堂地 得於陶山之南 有感而作 二首>

43) 李滉, 《退溪全書》 卷5, <金而精送盆竹二首>

44) 李滉, 《退溪全書》 卷5, <次韻禹景善菊花問答六首>

45) 李滉, 《退溪全書》 卷2, <黃仲學求題畫十幅>

46) 李滉, 《退溪全書》 卷2, <尋改卜書堂地 得於陶山之南 有感而作 其二>

그밖에 퇴계의 <早秋夜坐> 시에 나오는 “日夕如相促(올며대며 저녁나절을 재촉하니)” 시구는 도연명의 <飲酒其五> 시에 나오는 “山氣日夕佳(산 기운은 저녁나절에 좋고)”에서, 퇴계의 <和趙上士士敬五首> 시에 나오는 “八表同昏誰與清(은 누리 모두 깜깜 어디서 청명 보리)”의 시구는 도연명의 <停雲> 시에 나오는 “八表同昏, 平路伊阻.(은 누리 다 어둡고, 평탄한 길이 막혀 버렸다.)”에서 각각 그 詩想을 취한 것이다.

兒童豈知此, 呼叫索梨栗.

床前有筆硯, 長吟聊自述.

(아이놈들 제 어찌 이를 알리오! 대설레며 배와 밤을 찾을 뿐이네.

책상 앞에 붓벼루 놓여 있기에, 노래지어 애오라지 길게 읊노라.)⁴⁷⁾

이 시는 도연명이 자식들의 학문진전이 없음에 해학적으로 읊은 <責子>⁴⁸⁾ 시를 원용하여 퇴계가 철부지인 자식들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자녀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읊은 것이다.

3. 飲酒

梁代의 蕭統이 도연명의 시는 “篇篇有酒”⁴⁹⁾라고 말하였듯이 도연명의 시에서는 술을 읊은 시구들이 많이 있다.

도연명은 그의 <五柳先生傳>에서

性嗜酒, 家貧, 不能常得, 親舊知其如此, 或置酒而招之, 造飲輒盡, 期在必醉, 既醉而退, 曾不吝情去留.(성품은 술을 좋아하였으나 집이 가난하여 항

47) 李滉, 《退溪全書》卷1, <歲季得鄉書書懷>

48)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責子> : “通子垂九齡, 但覓梨與栗. 天運苟如此, 且進杯中物.”

49) 蕭統, <陶淵明集序> : “有疑陶淵明之詩, 篇篇有酒, 吾觀其意不在酒, 亦寄酒爲迹也.”

상 얻지는 못하였다. 친구들이 이와 같은 실정을 알고 혹 술자리를 마련하여 초청하면, 나아가 마시되 그 때마다 번번이 다 마셔서 반드시 취하는데 기약하였고, 이미 취 하고 나면 물러 나와 일찍이 떠나고 머무는데 미련을 두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듯이 술은 도연명의 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伴侶者이고, 마시면 반드시 취하도록 마시는 것이 그의 飲酒態度였다. 그러나 퇴계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도연명처럼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逃入昏冥我不求, 但師陶令爲忘憂.
年荒可怕塵生甗, 客至何妨葛喚籥.
月到天心應婉戀, 風將花事故遲留.
可憐李白疎狂甚, 枉託同杯憶五侯.

(혼명속에 빠지는 건 내 원치 않고, 다만 도연명같이 근심이나 잊으려 하오. 흉년들어 양식독에 먼지 날까 두려울 뿐, 손님 오면 갈건으로 거른다 나쁘겠소. 중천에 달 이르니 응당 아름답고, 꽃철이라 바람씨도 일부러 더디구나. 가련타 이태백은 너무도 수선 피워, 五侯 함께 마셨다고 자랑하네.)⁵⁰⁾

이 시에서 퇴계가 근심을 잊고자 술을 마신다고 읊은 것은 도연명이 그 당시 不淨한 사회와 어울릴 수 없음과 인생무상에서 오는 고독감을 치유하고자 술을 마신 점과 相通한다. 여기서 언급한 “忘憂”는 도연명의 <飲酒其七> 시에 나오는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수심 잊는 술에 띄워 마시니, 속세 버린 심정 더욱 깊어라.)”에서 차용하였고, “葛喚籥”는 도연명의 <飲酒其二十> 시에 나오는 “若復不快飲, 空負頭上市.(다시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머리 위의 망근에게 실망시키리.)”와 《宋書·隱逸傳》에 나온 “取頭上葛巾漉酒(머리 위의 갈건을 취하여 술을 빚다.)”에서 원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 李滉, 《退溪全書》 卷3, <和子中間居二十詠>.

퇴계는 그의 <和陶集飲酒其一> 시에서 “無酒苦無悵, 有酒斯飲之.(술이 없으면 고생스러워 즐겁지 않고, 술이 있으면 이에 마신다.)”라고 읊고, 그의 <和陶集飲酒其十二> 시에서 “此時忘憂物, 吾亦可已之.(이때 근심 잊을 수 있는 술 있으면, 내 또한 그것 마다할 수 있으리!)”라고 읊었으며, 그의 <和陶集移居韻二首> 시에서 “獨酌一杯酒, 閒詠陶韋詩. 逍遙林澗下, 曠然心樂之.(홀로 한 잔 술을 딸아, 한가로이 도연명과 위응물의 시를 읊조리네. 숲과 시내 사이를 유유자적하게 거니노라니, 광활하여 마음 즐겁기 그지없네.)”라고 읊은 시구들을 보면, 퇴계는 도연명처럼 술을 마신 후 고아하고 깨끗한 자태로 千古의 흥을 즐기하고자 하였다.

퇴계의 시에 나타난 도연명의 음주와 관련된 다른 시를 감상해 보자.

東隴上翠微, 九日攜壺酒.

却勝陶淵明, 菊花空滿手.

(동릉으로 翠微에 올라가면서, 九日이라 한 병 술을 들고 갔다네.

도연명의 신세보다 되려 나은 것은, 국화가 그의 손에 가득 찼다오.)⁵¹⁾

이 시에서 퇴계는 스스로 가을 九重節에 東隴의 翠微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신 후의 기분을 도연명이 그의 <九日閑居> 시에서 重陽節을 맞이하여 국화가 활짝 피어 있는데도 술을 마실 수 없는 데서 일어나는 감회를 읊은 情感보다 낫다고 하였다.

한편 퇴계는 도연명의 <飲酒二十首>에 和答하는 <和陶集飲酒二十首>를 지었다. 이 시에 대하여 丁奎福의 말을 빌리면, “형식상 도연명의 <飲酒其二十首>에 和韻한 것일 뿐,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은 있지만, 전연 양자가 별개라 해도 좋다. 다만 양자의 흐름에 있어서 공통성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아와 은거하여 음주한다는 대체에 있다.”⁵²⁾

51) 李滉, 《退溪全書》, <陶山雜詠>

52) 丁奎福, <退溪文學과 陶淵明>, 《退溪學研究》, 서울, 檀國大學校, 1995, 120쪽.

라 하였고, 張基權은 “이 시에서 음주의 경지를 읊은 시는 모두 여섯 수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취한 경지를 좋다고 내세운 시는 한 수에 그치고, 나머지는 술로 괴로움을 달래거나, 술을 통해 옛 사람을 회상하는 것 등이다.”⁵³⁾ 라고 평하였다.

4. 桃花源

도연명이 <桃花源記>에서 밝힌 桃源世界는 포악한 정치를 반대하고, 암흑 같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사상 감정을 통해 투쟁과 압박이 없으며, 기아와 굶주림이 없고, 노동과 휴식이 공평하며, 경제가 균등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막힘이 없이 융화되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이상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퇴계는 그가 은거할 때 머물렀던 淸涼山의 정경을 桃花源에 비유하여 아래와 같은 時調를 읊었다.

淸涼山 六六峰을 아느니 나와 白鷗
 白鷗 | 야 현스흐라 못미들슨 桃花 | 로다
 桃花 | 야 찌나지마라 漁舟子 알가흐노라⁵⁴⁾

이 時調에서 퇴계는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桃花”·“漁舟子”의 素材를 援用하여 淸涼山의 아름답고 고요한 정경을 그렸지만, 그 다른 일면에는 淸涼山의 정경이 도연명이 그린 ‘武陵桃源’ 못지 않다는 뜻도 담고 있다.

53) 張基權, <和陶飲酒二十首에 나타난 東坡와 退溪의 情趣>, 《葛雲 文璇奎博士 華甲紀念論文集》, 光州, 全南大學校出版部, 1985, 50쪽.

54) 李滉, 《退溪全書》 遺集 外篇, <淸涼山歌>

5. 人生無常

‘無常’이란 恒久性이 없다는 뜻으로 원래 佛家語에서 나온 말이다. 도연명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無常을 느껴 아래와 같은 <挽歌詩>를 지었다.

有生必有死, 早終非命促.
 昨暮同爲人, 今且在鬼錄.
 魂氣散何之? 枯形寄空木.
 嬌兒索父啼. 良友撫我哭.
 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
 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 빨리 가는 것도 제 운명이니라. 옛저녁엔 같은 사람이었으나, 오늘 아침엔 명부에 이름이 있더라. 혼기는 흩어져 어디로 가나, 시체는 텅 빈 관속에 드네. 아이들 아버 찾아 울고, 벗들은 나를 만지며 통곡하네, 이제는 다시 득실 따지지 않고, 시비도 아는 척하지 않노라. 천년 만년 후에는 누구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알지 못하리. 오직 살아 생전의 한은 마냥 술 마시지 못한 것뿐.)⁵⁵⁾

이 시에서 도연명은 ‘得失’·‘是非’·‘榮辱’ 등을 얻고자 살아가는 인간들을 비웃고, 오직 자신은 살아서 흠뻑 술을 마시지 못함이 유감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그가 느낀 인생무상에 대한 허무를 그의 <歸園田居其四> 시에서 “人生似幻化, 終當歸空無.(인생은 마치 환상의 조화, 끝내는 공과 무로 돌아가리!)”와 그의 <飲酒其八> 시에서 “吾生夢幻間, 何事縶塵羈.(삶과 꿈은 환상이거늘 왜 진세의 구속에서 매어야 하나!)” 및 그의 <乞食> 시에서 “銜戢知何謝, 冥報以相貽.(가슴 깊이 감사하여 값을 길 몰라, 오직 저승에서나 보답하여 올리리다.)”라고 읊으며 “空無”·“夢幻”·“冥

55) 李滉, 《陶靖節先生集》, <挽歌詩其一>

報”를 언급한 것은 佛敎思想에 접근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 쓴 그의 <自祭文>에서 “陶子將辭逆旅之館，永歸於本宅。(도 아무개는 임시로 몸담았던 객사에서 물러나 바야흐로 영원한 본연의 집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라며 대자연에 그의 肉身을 맡기고자 한다고 말한 것은 老莊思想에도 가까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死後의 不滅觀에 대하여는 그의 <連雨獨飲> 시에서 “世間有松喬，於今定何聞。(적송자 왕자교가 神仙되었다고 전하나, 지금 그들의 소식 듣지 못하네.)”와 그의 <歸去來辭>에서 “帝鄉不可期(죽은 후에 天帝가 사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을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읊어 道家의 神仙思想이나 佛家에서 말하는 死後世界에 대한 懷疑를 강력히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상은 퇴계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人生如朝露，羲馭不停驅。

手中絃綺琴，絃絕悲有餘。

獨有杯中物，時時慰索居。

(인생은 아침이슬과 같은 것, 희화는 수레 몰아 멈추지 않네. 손에 든 거문고마저, 줄 끈기고 슬픔만 남아 있네. 유독 저 잔 속의 술만이 때때로 쓸쓸한 거처 위로해 주네.)⁵⁶⁾

이 시에서 퇴계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지를 모르는 쓸쓸한 아침이슬처럼 느꼈기에 그는 “無絃琴”과 “杯中物(酒)”로 허무한 인생을 위로한다고 읊었다.

離合正如塵起陌，古今猶似澤藏山。

(헤어졌다 만나는 것은 독에 나는 먼지라면, 예 이제는 한결같이 늪에 감춘 산이로세)⁵⁷⁾

56) 李滉, <退溪全書> 卷1, <和陶集飲酒其十>

57) 李滉, <退溪全書> 卷1, <馬山次閱景說韻>

위 시구는 퇴계가 人生無常에 대한 깊은 심회를 읊은 것으로 도연명이

人生無根蒂, 飄如陌上塵.

分散隨風轉, 此已非常身.

(인생은 뿌리 없이 떠다니는, 밭 두렁의 먼지같이 나부끼는 것. 바람 따라 흐트러져 구르는, 인간은 원래가 무상한 몸이로세.)⁵⁸⁾

이라고 읊은 人生無常의 느낌과 相通한다.

我思古人, 實獲我心

寧知來世, 不獲今兮.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내 옛사람 생각하니, 내 마음 쏠리네. 어찌 죽은 후를 알아, 오늘을 알 수 있겠는가? 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다. 조화를 타고 죽음으로 돌아가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⁵⁹⁾

이것은 도연명이 죽음에 임박하여 <自祭文>을 지은 것을 본받아 퇴계가 지은 <自碑文>이다. 첫 단락의 “我思古人, 實獲我心.(내 옛사람 생각하니, 내 마음 쏠리네.)”는 퇴계가 평소 도연명의 인품에 대한 사모함을 밝혔고, 둘째 단락의 “寧知來世, 不獲今兮.(어찌 죽은 후를 알아, 오늘을 알 수 있겠는가?)”는 공자가 말한 “未知生, 焉知死.(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⁶⁰⁾라는 말로 그의 死後觀을 대변하였다. 셋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 나오는 “憂中有樂, 樂中有憂.(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다.)”와 “乘化歸盡, 復何求兮.(조화를 타고 죽음으로 돌아가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모름지기 천지조화의 원칙을 따라 죽

58) 陶淵明, 《陶靖節先生集》, <雜詩其一>

59) 李滉, 《退溪全書》卷1, <自碑文>

60) 《論語·先進篇》

음의 나라로 돌아가자! 또 천명을 감수해 즐긴다면 그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일 것이냐?)”를 援用한 것이다.

이외에도 퇴계는 그의 <和陶集飲酒其一> 시에서 율은 “豈不知彼榮, 虛名難久持.(어찌 저네들의 영화를 모르리오만, 헛된 명예는 오래 간직하기 어렵다네.)”와 <和陶集飲酒其四> 시에서 율은 “白雲在空谷, 無心天上飛.(흰 구름 빈 골짜기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늘을 난다네.)”, <和陶集飲酒其九> 시에서 율은 “萬物各自得, 玄化妙無乖.(만물이 제각기 스스로 만족한 것 같고, 오묘한 조화는 신묘하여 어긋남 없네.)”, 그리고 <和陶集飲酒其七> 시에서 “身死道長鳴(몸은 죽었지만, 도는 길이 울리네.)”라고 율은 시구들을 감상해 보면, 퇴계도 도연명처럼 人生無常에 대해 儒家로부터 해답을 얻지 못한 懷疑로 老莊思想에 접근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의 <和陶集飲酒其八> 시에서 율은 “陶然形迹忘, 沉復嬰塵羈.(취하여 흥 오르니 종적조차 잊었거늘, 하물며 다시금 세속의 굴레에 걸려든단 말인가!)”의 시구를 보면, 퇴계도 도연명처럼 불교사상에 가까이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계의 <和陶集飲酒其三> 시에서 “此道即裘褐(이 도는 곧 거울에 모피옷 입고 여름에 갈포옷 입는 것과 같은데.)”이라고 율은 것을 보면, 퇴계가 주장하는 道는 儒家主義의 ‘固窮節’에 두었으며, 그의 死後觀은 老莊과 불교의 永遠不滅이나 還生觀이 아닌 儒家의 現實觀에 主眼을 두었다는 점에서 퇴계의 사상은 도연명의 사상과 일치한다.

IV. 結 語

이상으로 退溪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을 조사한 결과 兩人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相似點과 相異點을 발견하였다.

1. 퇴계와 도연명은 각각 정치·사회의 混亂時期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儒家학습을 통해 배운 자연사랑이 그들의 隱逸思想을 싹트게 하였으며, 兩

人的 自然觀은 《莊子·齊物論》에 나오는 “天地與我並生, 萬物與我爲一. (하늘과 땅도 나와 더불어 함께 생겨나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에 두어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경지를 그들의 작품에 反映하였다.

2. 퇴계는 어려서부터 도연명의 시를 좋아하고, 그의 인품을 仰慕한 결과 도연명 시구들을 그의 시에 援用하여 도연명에 대한 존경과 흠모를 더하였다. 도연명의 시에 대한 和答詩에는 <和陶集飲酒二十首>와 <和子中閒居二十詠>가 있다.

3. 도연명은 晉宋年間的 정치·사회 혼란기에 활동한 인물로서 가난 때문에 벼슬길을 찾았으나, 그의 자연을 좋아하는 성품이 宦官생활에 맞지 않아 은일의 방법을 택하였고, 퇴계는 조선 중기 정치·사회의 격동기에 활동한 인물로서 그의 은퇴는 겉으로 身病과 老衰, 그리고 개인적 無能 등을 내세웠지만, 내면의 이유는 宦海風波와 그가 평소 자연을 좋아하는 성품이 주요 원인과 “天下有道則見, 無道人隱.(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라는 儒家의 가르침⁶¹⁾에 따랐기에 兩人의 은퇴는 모두 자기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어서 兩人의 出仕觀과 隱逸觀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兩人은 국화 사랑의 시를 써서 선비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보여 주었는데, 퇴계는 도연명의 시에서 볼 수 없는 매화 사랑의 시 100여 수를 남겨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더욱 굳건하게 드러내었다.

5. 퇴계가 은퇴하여 있을 때는 도연명의 田園閑居 생활을 동경하여 도연명 방식의 田園樂을 즐겼다. 그러나 말년에는 陶山書堂을 지어 후진양성에 힘쓰고, 성리학에 대한 저서를 비롯하여 방대한 문집을 남긴 것은 도연명의 행적에서 찾을 수 없는 사회이념의 구현이기도 하다.

6. 도연명의 시편에는 “篇篇有酒”라고 할 정도로 음주시가 많으며, 그의 음주량은 크고, 마시면 반드시 취하고자 하였지만, 퇴계의 飲酒詩는 도연명만큼 많지 않고, 음주량도 크지 않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반드시 취

61) 앞의 주24)

하러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兩人이 不淨한 사회와 어울릴 수 없음과 인생무상에서 오는 시름을 잊고자 술을 마신 점은 일치한다.

7. 순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현실과 격리된 老子의 ‘小國寡民’⁶²⁾ 이나 儒家의 ‘大同世界’⁶³⁾를 그린 도연명의 桃源世界는 다른 아닌 퇴계 자신이 머물고 있는 淸涼山의 배경과 다름없음을 천명하였다.

8. 도연명은 죽음에 임하여 인생무상을 느끼고 <自祭文>을 썼으며, 퇴계는 <自碑文>을 지어 자연에로의 歸依하고자 함을 밝혔다. 이것은 老莊과 불교사상에 의한 自然歸依가 아니라, 철저한 儒家 추종의 自然歸依였다는 점에서 兩人의 自然歸依사상이 같다. 또한 兩人이 주장하는 道는 儒家主義의 ‘固窮節’에 두었으며, 그의 死後觀은 老莊과 불교의 永遠不滅이나 還生觀이 아닌 儒家의 現實觀에 主眼을 두었다는 점에서도 퇴계의 사상은 도연명의 사상과 일치한다.

本稿는 퇴계의 작품에 나타난 도연명과 직접 관련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논술하였지만, 퇴계의 <年譜>나 <言行錄>을 보면, 그는 소년시절에 도연명의 시와 그 사람됨을 양모하였고,⁶⁴⁾ 청년시절에는 杜甫의 시에 심취되었으며, 만년에는 朱子の 시를 좋아한 것으로 나타났고,⁶⁵⁾ 특히 蘇東坡의 <前赤壁賦>도 오래도록 탐독하였다는 기록⁶⁶⁾이 있음을 볼 때 이들과 퇴계 시와의 비교문학적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62) 《老子》 第八十章: “小國寡民, 使有什伯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兵甲, 無所陳之: 使民復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國相望, 雞犬之聲相聞, 民之老死, 不相往來.”

63) 《禮記·禮運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外戶而不閉, 是謂大同.”

64)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年譜上, 九年甲戌>: “愛淵明詩, 慕其爲人.”

65)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先生自銘遺事>: “先生喜爲詩, 樂觀陶杜詩, 晚年尤喜看朱子詩.”

66)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類編>: “正襟端座, 良久詠前赤壁賦.”

<參考文獻>

- 《十三經注疏》，臺北，藝文印書館，1976。
《莊子》，서울，新華社，1983。
陶潛 撰·陶澍 注，《靖節先生集》，臺北，華正書局，1975。
九思叢書編輯部 編，《陶淵明研究》，臺北，九思出版社，1977。
張基權，《陶淵明》，서울，太宗出版社，1975。
退溪，《退溪全書》，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1963。
退溪學叢書編刊委員會，《退溪學譯注叢書》，서울，退溪學研究院，1997。
退溪學研究論叢刊行委員會，《退溪學研究論叢》，大邱，中文出版社，1997。
阿部吉雄，〈李退溪의 思想과 行動(一)〉，《退溪學報 第21號》，서울，退溪學研究院，1979。
丁奎福，〈退溪文學과 陶淵明〉，《退溪學研究》，서울，檀國大學校，1995。
張基權，〈和陶飲酒二十首에 나타난 東坡와 退溪의 情趣〉，《葛雲 文璇奎 博士 華甲紀念論文集》，光州，全南大學校出版部，1985。
李家源，《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서울，驪江出版社，1989。
李相殷，《退溪의 生涯와 學問》，서울，瑞文堂，1973。
朴鐘鴻，〈李滉〉《韓國의 人間像·第4卷》，서울，新丘文化社，1969。
《辭海》，臺北，臺灣中華書局，1980。

<中文提要>

退溪和淵明都生活在政治混亂時期，兩人的自然觀都出自《莊子·齊物論》中的“天地與我並生，萬物與我爲一。”，在他們的時中就體現了自然和人合二而一的境地。

退溪自幼就仰慕淵明的人品，羨慕他的生活，所以，他的詩中借用了淵明的專用的詩語，并且留下了和答詩《和陶集飲酒二十首》和《和子中間居二

十詠》。

兩人都以花草爲題材，淵明留下了喜愛菊花的詩，退溪除了菊花，還特別喜歡梅花，留下了100余首梅花詩，這表現了讀書人的氣節和操守。

淵明致仕歸田後，終日逍遙在詩、酒和農事中。而退溪在此外，還撰著有關性理學方面的書籍，開設陶山書院，致力於培養後進。這是在淵明那里找尋不到的不同的社會意識。

兩人的出仕和隱退都是出于儒家思想的“天下有道則見，無道則隱。”并不像竹林七賢那樣深受玄學和老莊思想的深刻影響，陷入頹廢之中。

淵明的詩篇中飲酒詩很多，幾乎達到了“篇篇有酒”的程度，他的酒量很大，喝起酒來總是一醉方休。而退溪的飲酒詩不像淵明那樣多，由于健康原因，他的酒量也不大，喝起酒來也不追求必醉的境界。不過，兩人在感慨社會的不協調和人生無常時，都靠飲酒來排解，這點是一致的。

淵明在彌留之際寫下《自祭文》，退溪寫下《自碑文》，表達了皈依自然的心願。這并不是老莊和佛教思想的皈依自然，而是徹底的儒家追求的皈依自然，在這一點上，兩人的思想也是一致的。

주제어 : 氣節和操守, 社會意識, 儒家思想, 篇篇有酒, 人生無常,

K C I